

朗善君 李俁(1637-1693)의 『百年錄』 研究

A Study of *Baengnyeon-nok*, Autobiographical Writing
by Nangseongun Yi U

황 정 연 (Hwang, Jung-Yon)*

◁ 목 차 ▷

1. 서 론	4.1 「金石錄」
2. 朗善君의 약력과 『百年錄』	4.2 「書法類」
3. 『百年錄』의 체제와 저술 배경	4.3 「編纂類」
3.1 체제와 구성	4.4 「題名記」
3.2 저술 배경	5. 결 론
4. 『百年錄』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초 록>

본 논문은 宣祖의 손자로서 17세기 왕실문화 발달에 있어 뚜렷한 족적을 남긴 朗善君 李俁의 자서전인 『백년록』(1692년)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글이다. 낭선군은 효종·현종·숙종 연간 宗親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남겼음에도 일대기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시기별 활동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작고하기 일 년전에 작성한 未刊 필사본 『백년록』을 통해 한동안 불분명했던 일생을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백년록』에는 낭선군의 1692년까지의 주요 생애사적 기록과 교유관계, 종친으로서 성장과정과 대외활동, 각종 서적의 편찬자, 서예가로서의 다양한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왕실인사와 문화사를 연구하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낭선군의 개인사적인 기록을 넘어 列聖御筆, 列聖御製, 璿源錄 등 다양한 왕실자료의 생산 및 편찬과 관련된 실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년록』은 자료 인멸로 인해 파악하기 힘든 17세기 왕실의 출판 상황과 그 속에서 일익을 담당한 종친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要語: 17세기, 宗親, 朗善君 李俁, 百年錄, 列聖御筆, 列聖御製, 璿源錄, 東國名筆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hjungyon@Korea.kr)

접수일: 2012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Nangseon-gun(朗善君) Yi U's(李侯, 1637~1693) autobiographical writing, *Baengnyeong-nok*(百年錄) dated 1692. As a grandson of King Seonjo(宣祖), he was favored by successive kings and organized several important royal publications. As a famous calligrapher he created many epitaphs and placards for the palace on the kings' behest. This book largely contains two parts: one is his daily life and the other one is his such expert activities publishing royal books and calligraphic works.

According to *Baengnyeong-nok*, at the age of 25, 1661, he participated in publishing *Yeollseong-eopil*(列聖御筆), *Album of Calligraphy by Success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as woodblock print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middle age, he has governed all procedures to compile and print several kings' lyrics and proses as huge volumes called as *Yeollseong-eoje*(列聖御製) and genealogical books of the Joseon Dynasty(璿源錄). Those facts show that he was perceived as one of the main compilers in the royal court. *Baengnyeong-nok* contains Yi U's gathering of ink rubbings from ancient steles and epitaphs throughout the country and made *Daedong Geumseok-seo*(大東金石書), *Collected Rubbings from Korean Steles*, as seven volumes in 1668. To date, theses albums have been thought to be one of the influential ink rubbing collections because we can get useful information of various steles both extant and now lost.

In conclusion, Yi U's autobiography, *Baengnyeong-nok*, will provide crucial information of loyal publications in the 17th century, Joseon.

Key words: Nangseon-gun Yi U, *Baengnyeong-nok*, Royal Descendant, *Yeollseong-eopil*, *Yeollseong-eoje*, *Seoneon-nok*, *Daedong Geumseok-seo*, *Dongguk-myeongpil*

1. 서론

조선시대 출판문화는 왕실(국가)을 비롯하여 사대부, 중인층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 외에 왕실 구성원 중 조선왕조 출판문화가 발달하는데 일조를 한 집단으로 宗親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宗室이라고 알려진 종친은 선왕의 자손 중 왕위를 계승한 가계를 제외한 나머지 가계 중에서 大君子孫의 4대손, 王子君子孫의 3대손까지 속한 人物群을 의미한다. 종친이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官界로의 진출이 철저히 금지되었던 반면, 선왕의 자손으로 5대 이상은 親盡이라 하여 왕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상에서 벗어났고 사환을 통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¹⁾ 종친은 국왕의 비호 아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린 유한계층 또는 권력투쟁의 희생자로서 인식된 면이 없지 않은 듯, 安平大君 李瑬(1418~1453)으로 대표되는 조선 초기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만 연구되었을 뿐²⁾ 이들의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조명 받지 못하였다.³⁾

이러한 측면에서 朗善君 李俟(1637~1693)의 활동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평생 동안 17세기 조선 문화의 역동성을 반영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1) 『經國大典』 卷1, 『吏典』 宗親府 및 京官職 正一品衙門 宗親府條. 親盡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親盡則文武官子孫例入仕”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종친의 범주에 속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종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2) 안회준·이병한 공저, 『安堅과 夢遊桃源圖』 (서울: 예경산업사, 1991).

안회준, “安堅과 그의 畫風 - <夢遊桃源圖>를 中心으로,” 『한국 회화사 연구』 (서울: 시공사, 2000), 343-379.

김홍남, “安平大君 소장 中國 書藝: 宋 徽宗, 蘇軾, 趙孟頫, 鮮于樞,” 『美術史論壇』 8호 (1999), 76-10.

이완우, “安平大君 李瑬의 文藝活動과 書藝,” 『美術史學研究』 246·247(2005), 73-112.

이종묵,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震檀學報』 제93호(2002), 257-275 등 참조.

3) 조선시대 종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金成俊, “宗親府考,” 『史學研究』 18(1964), 31-34.

南智大, “조선시대 禮遇衙門의 성립과 정비,” 『東洋學』 24(1994), 128-144.

韓忠熙, “朝鮮 世祖代(1445-1468) 宗親 研究,” 『韓國學論集』 22(1995), 187-222.

김수경, “17세기 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大史苑』 30(1997), 25-63.

金芝娟, “朝鮮初期 宗親 仕宦의 推移,”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4).

활동과 업적을 이루었다. 특히 낭선군이 주도하여 간행한 列聖御製, 列聖御筆, 璿源錄 등 왕실 관계 문헌이 다수 전해지고 있고 많은 희귀본을 소장한 藏書家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수집했던 역대 서예가들의 글씨를 모아 서첩으로 간행하거나 각종 문집을 집필·편찬한 사실을 통해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낭선군의 이러한 활동상에 대해서는 아직 서지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바 없다.⁴⁾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낭선군의 자서전인 『百年錄』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각종 왕실자료 편찬에 관여했던 그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종친 중에는 정치적인 피화를 겪은 인물들이 많아 문집을 간행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낭선군의 『백년록』은 종친이 남긴 유일한 일대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년록』에는 낭선군이 평생 동안 저술한 책과 종친으로서서 편찬을 주도한 왕실서적, 그리고 각종 문집 간행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낭선군이 『백년록』을 쓰게 된 문화적·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그의 편찬활동을 조명함으로써 17세기 왕실자료의 생산 및 출판과 연관된 다양한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2. 朗善君의 약력과 『百年錄』

낭선군은 자서전인 『백년록』 뿐 아니라 1663년 북경사행의 경험을 기록한 『朗善君癸卯燕京錄』, 자신이 편찬한 각종 서책의 序跋文을 실은 『雜著錄』 등을 통해 삶의 족적을 부지런히 남겼다.⁵⁾ 덕분에 동시기 다른 종친들에 비해 생애 및 가족사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며, 무엇보다도 생애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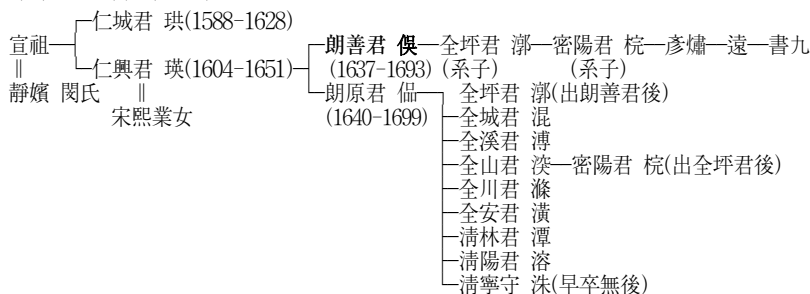
4) 낭선군에 대해서는 서화애호가로서의 활동이 조명된 바 있다. 황정연, “朗善君 李俔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 9집(2003. 9), 5-44.

5) 『잡저록』은 필사본으로 일본 천리대 도서관 今西龍文庫 소장본이다. 낭선군과 아들 李瀾이 함께 필사한 것이다. 이 책은 『韓國學報』 第51輯(1988), 177-229에 영인되었고 朴湧植의 해제가 첨부되어 국내에 소개되었다.

별로 소상히 기록한 연대기가 『백년록』에 수록되어 있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구체적인 생애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년록』이 낭선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전에 워낙 다방면에 걸쳐 교유관계를 나누었고 문학과 서화분야에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타인의 문집에서도 낭선군의 다양한 행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백년록』을 중심으로 낭선군의 약력을 살펴보고, 필요 시 앞에서 언급한 연행록과 『잡저록』, 그리고 주변인들의 저술도 함께 언급하며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백년록』에 의하면 낭선군은 1637년 음력 11월 11일 宣祖의 열두 번째 아들인 仁興君 李瑛(1604-1651)과 宋熙業의 딸 礪山君夫人 宋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5세에 朗善君에 봉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字는 碩卿이며 1664년 觀瀾亭이라는亭자를 짓고 그 이름을 자신의 號로 삼았다.⁶⁾ 유일한 同腹 형제로 朗原君 李儼(1640-1699)이 있었다. 낭원군 이간은 낭선군과 더불어 글씨와 문장에 박학하였고 서화취미가 있어 평양화가 曁世傑(1635~?)에게 그림을 부탁하거나 우리나라 역대 화가들의 그림을 모은 화첩을 가지고 있었다.⁷⁾ 또한 형과 함께 역대 임금의 어필을 간행하였으며, 1679년 列聖의 世系와 자손을 정리한 『璿源系譜紀略』을 처음으로 저술하여 왕실족보인 『璿源錄』이 체계적으로 편찬되는 계기를

- 6) 낭선군은 후사가 없어 낭원군의 장남 全坪君 李瀾을 양자로 들였으나, 전평군 역시 후손이 없었으므로 낭원군의 가계는 계속해서 양자로 家系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낭선군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출전: 仁興君派丁卯譜修補委員會 編, 『全州李氏仁興君派譜』 (서울: 千字文藝社, 1988).

- 7) 李賀朝, 『三秀軒集』 卷3, 「朗原君八帖畫跋」.
 ———, 『三秀軒集』 卷3, 「題朗原公子畫帖」.

마련해 주었다.⁸⁾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사하여 南別殿에 봉안하도록 하는 등⁹⁾ 17세기 왕실문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낭선군의 知己였던 南九萬(1627-1711)이 『朗善君孝敏公神道碑銘』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일생은 『璿源錄』, 『列聖御製』, 『列聖御筆』 등 왕실자료를 간행한 편찬자, 각종 碑額書를 쓴 서예가, 다수의 서책과 서화를 수집한 장서가이자 수장가, 그리고 名山을 유람하고 시를 쓴 詩人墨客이자 가난한 文士를 도와준 후원자로 집약된다.¹⁰⁾ 무엇보다도 그는 역대 국왕들의 총애를 받으며 문화 활동에 두각을 나타내어 왕실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그가 노년에 임금에게 감사한 글인 『感君恩詞』를 썼고 『백년록』의 서문에서 평생 동안 國恩을 받으며 살았다고 술회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다방면에 걸친 낭선군의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평생 동안 孝宗·顯宗·肅宗 세 임금을 섬기며 종친으로 활동한 것이었다. 1663년·1671년·1686년 세 번에 걸쳐 謝恩使로 차출되어 북경에 다녀왔고 1661년 이후 왕실 족보 및 역대 임금의 어필을 모아 간행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또한 御眞의 移奉, 종친부의 일을 관장하는 등 동시기 종친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였다.¹²⁾ 西人이 득세한 숙종 후반기에 다른 종친들이 왕실자료 편찬 업무에서 대부분 제명당한 것과 달리 낭선군은 종친으로서 행한 일련 활동을 인정받아 승헌대부, 가선대부를 제수 받았고 아우 낭원군과 더불어 꾸준히 왕실 행사에 참여하였다. 『백년록』에 『編纂類』와 『書法類』, 『題名記』라는 소제목으로 수록된 글은 바로 이러한 행적의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8) 『璿源系譜紀略開刊儀軌』(藏書閣 소장본, K2-38237).

『肅宗實錄』卷8, 5年(1679) 2月 庚辰(15日).

홍순민, “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 璿源錄—1681년 《璿源系譜紀略》의 편찬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1(1990), 167-202.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27(2004), 211-234.

9) 『肅宗實錄』卷19, 14年(1688) 3月 丙子(3日).

10) 南九萬, 『藥泉集』 第17, 『朗善君孝敏公神道碑銘』 참조.

11) 李 俔, 『百年錄』 「自叙」.

——, 『雜著錄』 「感君恩詞」.

12) 『肅宗實錄』卷19, 14年(1688) 9月 己卯(10日).

낭선군·낭원군 형제가 燕行을 비롯한 『璿源錄』 및 기타 왕실관계 자료 편찬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南人세력이 우세하였고 종친에 대한 예우가 좋았던 현종 연간(1659-1674)에 주로 활동함에 따라 왕실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친 인흥군의 형 仁城君 李珙(1588-1628)과 이복형제 義昌君 李瑬(1589-1645)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로 인성군·인흥군의 자손들은 時流에 개입하지 않은 채 조용한 삶을 자처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멀리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동시대 종친들인 福善君·福昌君·福平君이 정치일선에 전면적으로 대두하였다가 서인측에 의해 賜死되었을 만큼 숙종 후반기로 갈수록 남인과 서인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낭선군의 입장에서는 남인측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던 종친으로서 처신을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¹³⁾ 따라서 이러한 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집안 내력으로 인해 낭선군과 낭원군 형제는 정치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고 왕실자료 편찬에 치중하면서 王權을 보좌하는 등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낭선군은 편찬자였을 뿐 아니라 당대가 인정한 藏書家이기도 했다. 『백년록』의 1666년(30세) 5월에 쓴 일기에서 “寢南에 새로 特室[四樂堂]을 지어 圖籍을 수장하고 盤松 아래에 雙鶴을 키우며 혹 글씨를 쓰거나 감상을 하며 自娛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¹⁴⁾ 萬古藏과 尙古齋라는 서재를 건립하여 많은 서책과 서화를 수집하고 열람한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¹⁵⁾ 그가 사용한 藏書印인 「王孫之藏」(백문방인)은 “尙古齋藏”이라고 쓰인 서책에 찍힌 것으로, 이는 상고재가 낭선군이 이용한 藏書室이었음을 말해 준다(<표 1> 참조). 이밖에 낭선군은 「朗善君書畫

13) 숙종재위 후반기 종친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김수경(1997), 25-63 참조.

14) 李 俔, 『百年錄』

“丙午 … 五月新構特室於寢南，藏圖籍，養雙鶴於盤松下，或臨池，惑觀書以自娛。”

허목은 許穆, 『記言』 13, 中篇 「四樂堂記」에서 낭선군이 이 때 지은 特室을 四樂堂이라고 밝혀 놓았다.

15) 萬古藏은 인흥군이 건립한 후 자손들의 장서실로 이용된 곳이다. 낭선군은 1691년 萬古藏의 편액을 篆書로 써서 걸어두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李書九, 『楊齋屏居錄(中)』과 李俔, 『雜著錄』 「羣玉清玩序」 참조.

印」, 「僞善最樂」, 「朗善公子之章」 등 다양한 장서인을 사용하였다.¹⁶⁾

<표 1> 낭선군이 사용한 藏書印 사례

印影	印文	印影	印文
	之王 章孫		畫君朗 印書善

낭선군의 藏書는 부친 인홍군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책과 서화, 그리고 그가 세 번에 걸쳐 다녀온 부연사행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장서가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낭선군의 5대손 李書九(1754-1825)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우리집은 靖孝公[인홍군의 시호] 때부터 벌써 장서가 수천권이 있었고, 孝敏公[낭선군의 시호] 때에는 서적을 모은 것이 점점 불어났다. 陽德坊 옛집에는 서적을 쌓아두는 누각이 있어 ‘萬古藏’이라 편액을 붙였는데, 그 뒤 태반이 산실되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한 性癖이 있어, 여러 해 동안 收藏한 것이 거의 만권에 이른다.¹⁷⁾

인홍군과 낭선군 대를 거치며 형성된 풍부한 藏書와 文翰의 전통이 이서구가 조선후기 북학사상을 개척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낭선군 집안에 보관되어 오던 풍부한 서책과 서화 등은 일제강점기에 후손가를 조사한 일본인 서지학자 이마니시 료(今西 龍)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에 의해 대부분 일본으로 유출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16) 吳世昌, 『槿域印藏』(서울: 國會圖書館, 1968) 참조.

17) 李書九, 『惕齋屏居錄』(필사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吾家自靖孝公, 已有藏書數千卷, 孝敏公收, 收蓄漸富, 陽德坊舊第, 有貯書之閣, 扁以萬古藏. 其後, 太半散失. 余自童年, 有嗜書之癖, 積年收藏, 幾至萬卷.”

정황은 나카무라가 『朗善君癸卯燕京錄』의 해제에서 1900년대 초 낭선군의 후손가를 조사하게 된 경위를 적은 후 알려지게 되었다. 낭선군가의 물품은 1925년경 유출되어 경성의 서적상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거래되었다. 이 중에는 그의 저서와 금석첩, 어필첩, 善本 서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낭선군 장서 일부가 천리대 今西龍文庫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¹⁸⁾

낭선군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다양한 교유범위를 이름으로써 학문적·예술적 소통을 이루었다. 『백년록』과 『잡저록』에는 그가 교유한 종친, 문인학자, 서예가, 중인, 승려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초월한 인물들과 왕래한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왕실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종친들과 접촉했는데 그 중에서도 嶺陽君 李儼·海原君 李健·海寧君 李倣·花昌君 李沈·福昌君 李楨과 시문을 서로 수장하거나 여행을 가기 전 餞別詩를 써 주는 등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¹⁹⁾

종친 외에 낭선군이 교유한 문인들로는 趙涑(1595-1668)·許穆(1595-1682)·宋時烈(1607-1689)·李景奭(1595-1671)이 있다. 조속은 낭선군의 부친 인흥군과 서화교류를 했기 때문에 낭선군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속이 만년에 眼疾로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빈한하게 되자 낭선군이 그를 위해 기와를 사서 지붕을 덮어주기도 하였다.²⁰⁾ 서인인 송시열은 낭선군의 부친 인흥군대부터 친분을 쌓으며 서화교류를 한 인물이다. 그는 낭선군의 서첩과 그가 간행한 역대 명현들의 서첩에도 여러 편의 발문을 남겼는데, 낭선군의 글씨에

18) 藤田亮策, “讀史閑,” 『書物同好會會報』 제6호(1939)(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서울: 학연문화사, 2005 참조). 후지타(藤田)는 1920년대 한국에 와서 고본발굴에 참여하여 역사학자로서도 활동했으며, 그 역시 낭선군의 장서를 소유했다.

일본 천리대도서관의 있는 금서릉 문고의 상당 부분은 낭선군의 장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서릉 문고 중에는 낭선군의 서첩과 그가 소장했던 16·17세기 귀중본 문집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목록만 알려져 있고 그 全貌와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되고 있지 않다. 목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 6-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2006) 참조.

19) 이들이 서로 수장한 시는 李俔, 『雜著錄』에 「別福昌之燕行」, 「次花昌韻」, 「次海寧公子送別燕山韻」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20) 南九萬, 『藥泉集』 第17, 「朗善君孝公神道碑銘」.

대해서는 왕희지의 體法을 깊이 터득했다고 극찬하였다.²¹⁾ 이경석은 趙涑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낭선군 뿐 아니라 인성군·인흥군 자손들과 두루 안면이 있었던 인물이다. 문장을 잘하기로 이름 있었던 그는 여러 종친들의 碑文을 지었는데, 낭선군은 인흥군의 신도비문을 이경석에게 받았으며 서로 문예로써 교류하였다.²²⁾ 낭선군이 허목·송시열·이경석·권상하 등 당대 名儒들에게 族人들의 묘갈문을 받은 사실을 통해 그의 사회적인 명망을 짐작할 수 있다.

낭선군이 교우한 여러 인물 중 그에게 학문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끼친 인물은 許穆이다. 두 사람 모두 명산대천의 유람에 癖이 있어 들린 곳마다 기행문을 남겼으며 佛敎를 배척하지 않고 승려들과 교유한 것이 공통적이다.²³⁾ 또한 서화 취향과 학문적인 관심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특히 당대 풍미했던 古學風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허목은 중국의 三代(夏·殷·周)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그 속에서 예술과 治道의 방향을 찾아야한다는 신념을 표방한 인물이었다.²⁴⁾ 그의 六經에 기초한 古學에 대한 태도는 낭선군이 금석문을 수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허목의 문집인 『記言』뿐 아니라 『백년록』에도 낭선군이 소장한 金石帖에 허목이 跋文을 써주었거나 반대로 낭선군이 허목에게 중국 古文搨本을 보여 준 일화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 서로 긴밀했던 관계를 엿볼 수 있다.²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낭선군은 宣祖의 손자로서 왕실의 비호를 받고 성장하였으며 부친인 인흥군의 한묵취미에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예술적 소양을 발전시켰다. 또한 許穆과 학문적 교분을 통해 서화와 古文에 관한 지식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가 당대 명망 있는 서예가이자 장서가, 편찬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1) 宋時烈, 『宋子大全』 卷148, 「朗善君所寫二屏跋」.

22) 李 俔, 『雜著錄』 「次白軒相國韻贈祐師」 참조.

23) 허목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權鎭浩, “眉叟 許穆의 尙古精神과 散文世界,”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1), 50-52 참조.

24) 鄭玉子, “眉叟 許穆 研究,” 『韓國史論』 5(1975), 208-232.

한영우,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韓國學報』 40(1985), 44-63.

25) 李 俔, 『百年錄』 「癸卯七月二十三日」; 「戊申四月」.

3. 『百年錄』의 체제와 저술 배경

3.1 체제와 구성

『백년록』은 세로 23.7cm, 가로 15.9cm 크기이며 5針의 線裝으로 粧幀된 불분권 1책(총 125면)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²⁶⁾ 이 책은 일제강점기 낭선군 후손 집에서 유출된 후 당시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학자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手中으로 들어갔었으나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나라에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백년록』에 수록된 일기의 마지막 연대가 1692년 1월 29일인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저술된 시기 역시 이 즈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92년은 그가 생을 마감하기 바로 일 년전이다. 따라서 『백년록』은 낭선군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회고록이자 마지막까지 筆寫의 의지를 보인 자서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서명을 “백년록”이라고 지은 것 역시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²⁷⁾

서문과 일기 부분의 필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최소 2명 이상이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데군데 별도의 題籤을 붙이거나 수정을 한 흔적이 있어 본격적으로 간행하기 전 교정을 본 定稿本인 것으로 보인다.

표지의 뒷면에는 自叙·金石錄·塔銘類·碑刻類·懸額類·巖刻類·奉敎類·燔瓷類·舊刻類·書法類·編纂類·題名記의 총 12개로 구분된 짧은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서 목차에는 없으나 낭선군의 생애 중 중요한 일상을 낱차

26) 四周單邊 半郭 19.7×13.0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23.7×15.9cm. 『百年錄』은 부산대 제1도서관 소장본이다(청구기호 2-742). 나카무라는 낭선군의 연행경험을 담은 『飮水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의 소장처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27) 낭선군은 書名을 “백년록”이라 지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曹伸(1455-?)의 『백년록』이나 鄭維翰(1568-1640)의 『백년록』 등 동일한 서명의 사례를 보면 모두 저자의 일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낭선군 역시 자신의 회고록이라는 관점에서 백년록이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별로 간략히 정리한 日記가 옆 장에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낭선군의 저술과 편찬 서적, 서예 활동과 관련된 상세 목록이 수록되어 있어 총체적인 작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3.2 저술 배경

『백년록』의 저술 동기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글은 이 책의 첫머리에 수록된 自叙이다. 일반적인 자서가 저자의 감상과 생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낭선군의 자서는 탄생 후 자서전을 쓴 시기까지 종친으로서 활동상을 요약한 傳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내용을 보면 孝宗의 능인 寧陵의 表石을 쓰고 守陵官을 지낸 일, 璿源錄을 간행하여 顯綠大夫에 제수된 일, 御命을 받들어 일본에 보낼 現판글씨를 쓴 일, 왕족들의 虞主와 銘旌을 쓴 일, 太祖御眞을 전주 경기전에 봉안한 일, 열성어제를 간행하고 內廐馬를 하사 받은 일 등 왕명에 의해 왕실의 각종 업무에 書寫官으로 차출되어 글씨를 쓰거나 서적을 간행하여 上典과 관직을 제수 받은 사실이 연대순으로 열거되었다.

낭선군은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한 후 마지막 문단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임금의 은혜[國恩]을 크게 입었으며 “혹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걱정되어 부족하나마 이처럼 기록하였으니 이 몸이 죽더라도 말한 바를 잊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²⁸⁾ 곧 왕실 후예로서 자신이 평생 임금으로부터 받은 은덕을 기록하는 것이 결국 國恩에 보답하는 것이므로 『백년록』은 자신의 이러한 신념에 대한 일종의 증빙과도 같은 글임을 암시하였다.

낭선군의 이러한 철저한 기록정신은 인홍군으로부터 비롯된 가문의 전통이자 그가 57세의 나이에 죽기 직전까지 집필에 힘썼던 源泉이었다. 부친 인홍군은 17세기 초에 일어난 중요한 국가적인 변란인 李适의 난(1624)과 병자호란(1637)을 체험하며 쓴 일기인 『湖西錄』과 『南漢錄』을 각각 남겼고 북경에서의 체류

28) 李侯, 『百年錄』 「自叙」.

“嗚呼! 此乃不忘平生受國恩, 禮之大者也 … (중략) … 惑恐風燭之奄, 及聊記如右, 以爲歿身不忘之所云爾.”

경험을 다룬 『燕山錄』, 우언체 소설인 『夢遊錄』,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교류상황을 조목조목하게 적은 『月窓夜話』 등을 통해 자손들에게 사소한 일상사까지 꼼꼼히 메모한 생활태도를 전수해 주었다. 인흥군의 이러한 성향은 아들인 낭선군이우에게 전승되었으며 그 역시 아버지처럼 평생 동안 저술과 서적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며 家風을 이어나갔다.

한편 낭선군은 서인과 남인의 反目이 지속된 17세기 봉당 정치 속에서 종친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과 후사가 없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낭선군은 자신의 글 뿐 아니라 후손이 끊긴 선조들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하여 찾은 글을 謄寫하여 『先君遺卷』을 만들었고 이들의 흩어진 필적을 모아 첩으로 제작했으며, 부친의 생애를 정리하여 『靖孝公家乘』을 간행하는 등 선조들의 생애 복원과 관련된 작업에 매진하였다. 낭선군의 이러한 활동을 상기한다면 자신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散逸을 방지함으로써 후손들이 종친 가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 이것이 그가 『백년록』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방하고자 한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百年錄』의 주요 내용

4.1 「金石錄」

「금석록」은 낭선군이 왕명을 비롯하여 공사적인 부탁을 받아 쓴 비문 등 각종 금석 재질로 된 서예작품 목록이다. 「금석록」이라는 큰 제목 아래 “碑碣類”, “塔銘類”, “碑額類”, “懸額類”, “巖刻類”, “奉教類”, “燔瓷類”, “舊刻類”의 소제목이 용도별로 구분되었으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서예가로서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금석록」의 시작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서문이 부기되어 있다.

내가 평상시 예전에 쓴 先世의 墓道文字 외에 局內의 여러 무덤의 大小石刻 및 사대부의 碑版, 사찰의 塔銘, 樓觀의 懸板類를 막론하고 정교하거나 조악한 것을 함께 수록하여 참고에 편리하게 한다. 또한 銘旌·玉寶·虞主·陵誌類처럼 命을 받들어 써서 진상한 것 역시 하단에 첨부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비한다.²⁹⁾

위 서문을 통해 낭선군은 『금석록』에 자신이 부탁을 받아 쓴 글씨를 모두 포괄 하였음을 밝혔다. 각각 소재목의 내용과 수록된 작품의 수량을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백년록』 수록 「金石錄」의 내용

순번	소재목	내용	수량(건)
1	金石錄	낭선군이 墓石物에 篆書, 楷書, 行書로 쓴 부친 仁興君의 신도비, 族人들의 墓碣, 床石 등 목록	32
2	碑碣類	낭선군이 쓴 祖妣 靜賓閔氏, 숙부 義昌君, 仁城君 등 族人과 宗室, 지인들의 墓碣, 墓表 등 금석문 목록	44
3	塔銘類	낭선군이 전서와 행서로 쓴 승려들의 塔碑와 事蹟碑 목록	12
4	碑額類	낭선군이 전국 유명 사찰 高僧들의 탑비에 전서로 쓴 碑額 목록	10
5	懸額類	낭선군이 쓴 관청 및 私家, 樓亭 현판 글씨 목록	28
6	巖刻類	금강산, 지리산, 묘향산 등의 바위에 새긴 낭선군 글씨 목록	8
7	奉敎類	낭선군이 왕명으로 쓴 서첩과 왕족들의 지석문, 신도비, 金寶, 冊文, 碑額 등의 목록	19
8	燔瓷類	낭선군이 써서 자기로 구운 祖妣 靜賓閔氏 墓誌銘	1
9	舊刻類	멸실되어 전하지 않는 낭선군의 옛 글씨	10
		총 계	164

<표 2>는 종실 출신의 서예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낭선군이 왕실의 중요한

29) 李俔, 『百年錄』 「金石錄」.

“不佞平昔所書先世墓道文字之外, 凡局內諸塚大小石刻及士夫碑版·寺刹塔銘·樓觀懸板之類, 勿論精粗率並收錄, 以便參考. 且承命書進如銘旌·玉寶·虞主·陵誌之類, 亦附于下端以備不忘云.”

행사라든지 궁궐 현판, 왕족과 신료들의 墓碣, 墓誌銘 등을 수시로 청탁받아 작업하였고 작품 수 또한 많았음을 보여 준다. 『금석록』에 적힌 작품 수는 총 164점에 달하며 그 중 碑誌類가 총 44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奉敎類”에 적힌 여러 작품 중 그가 1682년 일본인의 請으로 써준 <東山寶界廣孝靈宮>八字와³⁰⁾ 1689년 중국인 서예가 蔣熙禎과 합작하여 小篆으로 쓴 <老人星贊>은 그의 명성이 海外로도 알려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¹⁾

낭선군이 왕족들의 묘갈과 관청의 현판 書寫에 꾸준히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시문과 글씨를 구사할 수 있었던 재능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이미 7·8세부터 글씨에 뜻을 두어 篆隸草書가 모두 묘한 경지에 이르렀고 왕희지체를 가장 필진하게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이미 동시대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³²⁾ 현종은 낭선군의 글씨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먹과 벼루를 하사하며 작품을 자주 부탁하였고 숙종은 1688년 宣醢 의식을 거행하면서 낭선군에게 종친을 대표해 賡韻詩를 짓게 하는 등 그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왕실의 신망은 상당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³³⁾ 덕분에 그는 평생 동안 公·私적으로 수많은 글씨를 청탁받아 敎命과 啓文의 공문서, 『璿源錄』, 『國朝御牒』, 『列聖誌狀』, 『宗班行蹟』 등 왕실자료를 도맡아 쓰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금석록』에 기록된 많은 작품들은 멸실되었고 낭선군이 썼다는 宗親府 현판과 각종 奉敎類 등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인관료들의 신도비와 묘갈, <白蓮寺事蹟碑>(전남 강진 백련사 소재)처럼 사찰의 사적비와 역대 고승들의 탑비 등을 통해 그의 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0) 낭선군이 이 작품을 쓰게 된 일화는 『百年錄』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百年錄』「壬戌正月」).

31) 현존하는 낭선군의 서예작품은 『金石錄』에 기재된 것 외에 서첩과 간찰 등도 여러 점 전해지고 있다. 대표작으로 <蹲鴟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集字聖敎序>(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覆甌具>(일본 천리대 소장) 등이 있다.

32) 『肅宗實錄』卷36, 19年(1693) 9月 庚子(10日) 「朗善君卒記」.

33) 李侯, 『雜著錄』, 「賡和御製并序」.

4.2 「書法類」

「서법류」는 낭선군이 간행한 서첩인 《列聖御筆》과 《宣廟御筆》, 그리고 《東國名人筆迹》에 대한 기록이다. 간단히 제목만 기록되었고 각각의 帖名 아래 “石刻”이라고 부기되어 있어 모두 석판본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자료는 오늘날 모두 현존하고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낭선군이 종친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관여를 많이 한 부분은 《列聖御筆》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간행하는 일이었다.³⁴⁾ 그는 여러 종친들과 함께 열성어필을 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私的으로 御筆을 간행하였으며, 이것이 『백년록』의 「서법류」에 기록된 《선묘어필》이다. 그 외 여러 명필들의 書帖을 간행한 시기가 20대 중반부터 말년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젊어서부터 글씨를 摹刊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낭선군은 25세 때인 1661년 《列聖御筆》을 처음으로 간행하는 데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이 때 그와 더불어 어필간행에 참여해 이듬해 가자 받은 종친은 嶺陽君 李儼·福寧君 李栴·朗善君 李俔·福昌君 李楨·朗原正 李侃·花昌副正 李沈·海陽正 李僖·花善副正 李瀍이다.³⁶⁾ 이들은 모두 宣祖系 종친들로서, 낭선군·복창군·낭원군·화창부정·해양군·화선부정은 의창군·인성군·인흥군의 후손들이자 각자 어필을 摹刊한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1661년에 간행된 《열성어필》첩은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1첩이 남아 있으며 마지막 면에는 간행 목적을 밝힌 낭선군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서

34) 조선시대 열성어필 간행에 대해서는 이완우, “朝鮮王朝의 列聖御筆 刊行,” 『文化財』 243호(1996), 147-168 참조.

35) 낭선군은 역대 국왕의 詩文 및 書家들의 글씨를 모아 편찬한 것 외에도 인흥군의 행장과 詩文, 墓碣銘이 포함된 『靖孝公家乘』(1684), 仁興君의 年譜인 『先君年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낭원군 역시 아버지의 연보를 편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듯, 그도 인흥군의 일대기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靖孝公年譜』를 1699년에 朴世堂(1629-1703)과 함께 간행하였다. 두 형제가 아버지의 治績을 담은 연대기를 적극적으로 간행한 이유는 宣祖의 庶子였던 인흥군을 선양하고 왕족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6) 낭선군이 참여한 《열성어필》은 1661년에 완성되었고 이듬해 현종에게 진상되었다. 『顯宗實錄』 卷5, 3年(1662) 2月 戊午(14日).

그는 어필이 世代가 멀어 亂을 겪으면서 다수 흩어졌으므로 九廟의 유묵을 수집하여 印刊했다고 적었다.³⁷⁾ 그는 어필을 간행한 후에 許穆과 宋時烈에게 각각 서문과 발문을 받았으나, 현존본에는 두 사람의 서발문이 없는 상태이다.³⁸⁾ 이 첩에 수록된 九廟[文宗·世祖·成宗·仁宗·明宗·宣祖·元宗·仁祖·孝宗]의 御筆은 매우 정치하고 깔끔해서 우수한 刻法으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어필의 底本이 된 임금들의 글씨는 종친이 각자 소장했거나 이미 印刊한 작품들 중 선별된 것이었다.

낭선군이 1685년에 간행한 《宣廟御筆》은 숙부 義昌君 李瑬이 1630년 1첩으로 간행한 《선묘어필》에 추가로 어필을 수록해 증보한 것이다(<표 3> 참조). 의창군이 간행한 《선묘어필》은 종친이 만든 최초의 어필첩이자 낭선군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서첩이다. 낭선군이 1685년 간행한 어필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眉叟篆으로 새긴 「朗善公子之章」, 「碩卿」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간행 의도를 기록한 그의 跋文이 적혀 있다. 이 발문에서 그는 의창군의 《선묘어필》을 토대로 추후 발견된 어필을 첨가하여 다시 간행했음을 밝혔다.³⁹⁾

37) 《列聖御筆》(규장각 소장본 奎10310-10311).

“列聖御筆，世遠經亂，致多散亡，臣謹以聞見，蒐輯九廟遺墨，勒石廣布，且以印粧累件，奉安于國中名山，以壽其傳云，皇明崇禎紀元後 癸卯仲春，朗善君 臣 俔 拜手稽首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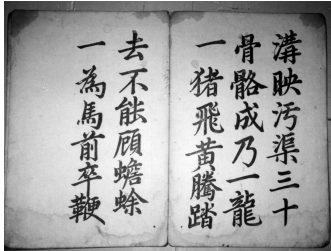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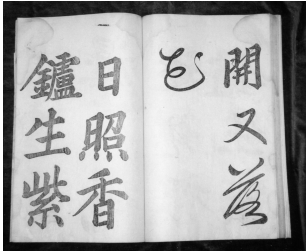
낭선군의 발문은 銀泥로 정교하게 썼으나 지금은 은니가 희미해져 字體가 명확하지 않다.

38) 許穆은 낭선군이 서문을 부탁하면서 《列聖御筆》을 자신에게 보여주었을 때 文宗·世祖·成宗·仁宗·明宗·宣祖·元宗·仁祖·孝宗의 御筆 39점이 들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宋時烈이 1667년에 쓴 “列聖御筆帖跋”에는 낭선군이 만든 것이 文宗부터 孝宗인데 宣祖가 가장 많은 것은 李俔가 선조의 親孫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記言』 別集序 「列聖御筆帖序」; 宋時烈, 『尤菴先生文集』 卷95, 「列聖御筆帖跋」.

39) 낭선군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어필 ‘兩家’부터 ‘深愁’에 이르기까지 20폭은 臣 仲父 義昌君이 새긴 것이고, 그 이하 ‘孝悌’부터 蘭竹에 이르는 27폭은 일찍이 壬寅年[1662]에 여러 종친이 간행하여 바친 것이다. 그 후 두 판본을 모두 大內에 들여와 상계서 ‘莫怪頻過’, ‘日照香爐’ 등 두 絕句 5幅을 그 가운데 添刻하고 芸閣[校書館]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몇몇 종신들에게 반사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것이 그 중 하나이다. 臣이 경근하게 그 대강을 간략히 적어 참고에 대비한다(筆自兩家至深愁二十幅，臣仲父義昌君所刻剛，而其下孝悌至蘭竹二十七幅，曾在壬寅諸宗臣之所刊進者也。其後二板俱入大內，上以莫怪頻過日照香爐等二絕五幅，命添刻其中，而下芸閣使之印，頒略干宗臣，此其一也。臣謹略識其梗槩以備參考云。)”

<표 3> 義昌君 刊 《宣廟御筆》과 朗善君 刊 《宣廟御筆》

1630년 의창군 刊 《선묘어필》	1685년 낭선군 刊 《선묘어필》
	

의창군이 간행한 《선묘어필》은 수량도 적고 소략한 데 비해 낭선군이 간행한 본은 추가된 내용이 많고 宣祖의 목판 墨蘭畵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까지 알려진 선조의 어필을 가장 많이 수록한 종합적인 어필첩이라고 할 수 있다.

낭선군이 참여한 1661년 《열성어필》 간행과 1685년 《선묘어필》 간행은 17세기 종친의 왕실자료 편찬의 실정, 왕실 내 그들의 입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宣祖의 8번째 아들인 의창군으로부터 비롯된 어필 간행이 17세기 전반에는 선조의 孫子代인 인성군·인홍군과 후손들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궁중에서 어필을 간행할 때에는 어필간행에 경험이 있었던 종친 계파를 중심으로 참여한 경향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의창군·인성군·인홍군과 종친의 선행업적은 이후에도 그들의 후손이 어필간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1725년 낭원군의 둘째 아들全城君 李混이 대대적인 열성어필 간행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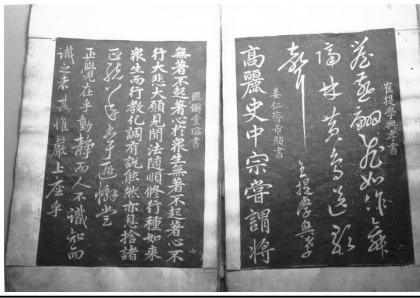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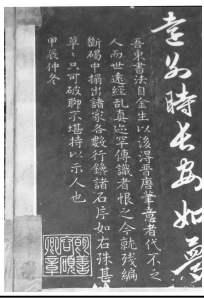
낭선군이 국가적인 어필간행에 참여한 것은 그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法帖을 만드는데 중요한 경험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어필은 당대 가장 우수한 판각기술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좋은 法帖을 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서법류」

40) 1725년全城君 李混의 열성어필 간행 참여에 대해서는 황정연,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1725년 『乙巳列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屏風謄錄』의 분석,” 『藏書閣』 제12집(2004. 12), 215-264 참조.

의 마지막에 기록된 《東國名人筆迹》은 오늘날 《東國名筆》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서첩으로서, 낭선군의 역대 명필적에 대한 관심과 출판 경험이 맞물려 제작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東國名筆》은 낭선군이 28세 때인 1664년에 만든 서첩이다. 신라 金生부터 조선 韓濩에 이르기까지 총 25명의 명필가들의 글씨를 모아 摹刻한 것으로, 마지막에 낭선군의 跋文과 인장이 첨부되어 있다 (<표 4> 참조).

<표 4> 낭선군이 1664년에 간행한 《東國名筆》

《동국명필》의 내지	낭선군의 발문(1664년)
	

《동국명필》의 겉장에는 후대인에 의해 “東國名筆”이라고 加筆되어 있고 칼로 오려지거나 조잡하게 粧綴되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刻法의 수준은 매우 정교하다.

『백년록』에는 顯宗 戊申年 4月條에 “《東國名筆》을 간행하고 尤相에게 발문을 받았다(刊東國名筆 受尤相跋文)”라고 하여 그가 1664년 《동국명필》을 간행하고 4년 뒤 宋時烈로부터 발문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서첩에는 송시열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와 문헌을 보면 낭선군이 간행한 서첩은 『서법류』 수록된 3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觀瀾亭石刻帖》과 《大東金石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낭선군은 이 두 서첩을 『서법류』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아마도 전자는 《동국명필》을 간행하기 전 시범 단계로 만든 미완성 서첩이고 후자는 刻本이 아닌 역대 비문의 탁본을 모은 탁본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3 「編纂類」

『편찬류』는 낭선군이 출판했거나 출판하기 위해 저술한 서책에 관한 목록이다. 낭선군의 저술은 생전에 거의 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존 유일본이 대부분이며, 타인의 글을 拾遺하여 편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사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백년록』에는 1692년 직전까지 그가 편찬했거나 편찬을 준비하기 위해 필사한 저술서가 열거되었는데 서명 아래에는 1692년 작성 당시 탈고·미탈고 여부를 부기해 놓았다. 목록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백년록』 수록 「編纂類」에 기록된 낭선군의 저술 및 편찬서

번호	書名	수량	편찬 시기	1692년 작업상황	현존여부	原書名	비 고
1	列聖御製	4冊	1682	編纂	현존	列聖御製	조선 열성의 글
2	先府君家乘	1冊	1670	入梓	현존	靖孝公家乘	仁興君의 연보 1684년 改刊
3	頤庵遺稿	5冊	1689	入梓	미상	미상	宋寅의 문집
4	先府君遺稿	3冊	1672	已繕寫	현존	先君遺卷	仁興君의 문집
5	匪懈堂遺稿	3冊	미상	已繕寫	미상	미상	『安平事述』 1冊현존
6	家中薦享儀	1冊	1673	已繕寫	미상	미상	跋文만 현존
7	喪禮小記	1冊	미상	已繕寫	미상	미상	
8	拙稿	7冊	미상	已繕寫	일부현존	雜著錄	낭선군의 문집 (詩·序跋文·簡札 등)
9	歷代年記	1冊	미상	已繕寫	미상	미상	
10	臥遊錄	미상	미상	已繕寫	현존	蠟履錄	낭선군의 기행문집
11	宗英行迹	1冊	1681	未脫稿	현존	宗班行蹟	종친들의 신도비명집
12	宗班詩文	미상	미상	未脫稿	미상	미상	종친들의 시문록
13	南止亭詩文	미상	미상	未脫稿	미상	미상	南袞(1471-1572)의 문집
14	臨池說林	미상	미상	未脫稿	미상	미상	역대 古人의 書論集

가장 먼저 기록된 『열성어제』는 1682년 낭선군이 조선왕조 역대 임금들의 글인 御製를 간행하는 데 책임자로 참여하여 완성한 책이다. 『열성어제』는 1631년과 1679년에 각각 義昌君 李瑬과 福昌君 李楨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탈락된 것이 많아 낭선군이 숙종의 재가를 받아 민간에 흩어져 있는 어제를 모으고 해당 史官으로 하여금 실록을 중심으로 史書에 들어 있는 것을 정리하게 하게 하였다.⁴¹⁾ 또 자료를 모아 8편을 편집하고 이것을 숙종이 權愈로 하여금 정정하게 한 뒤 1682년에 8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낭선군이 편찬한 1682년 간본 『열성어제』에는 매 卷마다 “宗簿寺提調顯祿大夫朗善君 臣 侯奉 敎編次”라는 문구가 書頭に 있고 그 뒤에 權愈의 관직이 열거되어 있다. 太祖부터 顯宗까지 총 65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成宗의 글이 187편으로 가장 많다. 이로써 『열성어제』는 그가 다른 종친들과 함께 참여한 《列聖御筆》의 경우와 달리 단독적인 책임자가 되어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왕실 내에서 문장과 글씨에 해박한 편찬자로서 그의 위치가 확고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5>에서 제시된 낭선군의 저술 중 『家中薦享儀』(1673)와 『臥遊錄』의 원본은 전래미상이지만 『雜著錄』에 각각의 발문이 한 편씩 수록되어 있어 저술동기를 알게 해준다. 『家中薦享儀』는 『朱子家禮』의 내용을 채록하여 후손들에 가정의 예법을 전수하고자 쓴 것으로, 이는 17세기 예학의 심화로 인해 『주자가례』와 家廟의 보급이 이루어졌던 시대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臥遊錄』은 낭선군이 명산대천을 유람하고 쓴 시문집으로, 원제목은 『蠟履錄』이다. 앞서 남구만이 쓴 낭선군의 묘지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낭선군은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여러 번 감회를 읊은 글을 남겼다. 낭선군의 『잡저록』에는 『납리록』의 서문만 실려 있으나, 원문의 일부가 일본 천리대에 소장되어 있다.⁴²⁾

41) 『列聖御製』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金鍾權, 『列聖御製』(서울: 明文堂, 1983), 1-13.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1999), 21-52 참조.

42) 천리대에 소장된 낭선군의 『납리록』은 『동방고전문학연구』 제2집(2000. 8)에 영인되어 소개되었다.

『납리록』에는 낭선군이 묘향산, 지리산, 오대산 등 전국의 名山을 둘러보고 감회를 읊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17세기 문사들 사이에서 여행이 증가하면서 와유록 저술이 유행한 당대 문예 조류를 엿볼 수 있다.

『臨池說林』은 전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역대 중요 書論을 모아놓은 저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 書論史 발달의 공백을 메워줄 자료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현존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頤庵遺稿』는 頤庵 宋寅(1516-1584)의 유고를 모아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인은 인흥군의 장인 宋熙業의 3대조이므로 낭선군의 외가어른에 해당한다. 그는 송설체를 잘 쓰기로 유명했으며 낭선군이 《觀瀾亭石帖刻》에 그의 글씨를 모각해 수록했을 정도로 작가로서 높이 평가한 인물이다. 이처럼 직접 송인의 유고를 수습해서 필사한 것 역시 그의 행적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암유고』는 1920년대 후손가에서 유출되어 총독부 관료이자 이왕가 박물관 설립에도 관여했던 후지타 료사쿠의 수중으로 들어갔다.⁴³⁾

위 표에서 열거한 낭선군의 저술 중 『歷代年記』의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나, 제목으로 보아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책으로 추정된다. 낭선군이 이러한 기년서를 편찬한 것은 17세기 南人 역사학의 풍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즉 象數學에 침잠해 있던 북인계 남인들은 이를 세계관에 적용하여 기년서를 편찬했으며 그 중 寒岡 鄭述의 『歷代紀年』이 대표적인 저작이다.⁴⁴⁾ 鄭述의 『역대기년』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연표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제목으로 보아 낭선군이 정구의 저술을 차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허목과 깊은 교유를 통해 남인학풍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 밖에 『백년록』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서책이나 어필첩, 서화첩 등 낭선군이 편찬했거나 소장했던 典籍의 종류와 수량이 열거된 것보다 훨씬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어 이 방면에 全心을 다한 그의 역량을 가늠하게 한다.

43) 藤田亮策, 「讀書閑話」, 『書物同好會會報』 제6호(1939).

44) 金恒洙, “寒岡 鄭述의 學問과 《歷代紀年》,” 『韓國學報』 45(1986), 32-65.

4.4 「題名記」

「제명기」는 낭선군이 참여한 왕실행사에 함께 동참한 인물들의 명단으로서 備忘記와 같은 성격의 글이다. 총 10건의 제명기가 실려 있으며 수록된 순서대로 각각의 내용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백년록』 수록 「題名記」의 순서와 내용

순번	제명기	연대	내용	비고
1	宗臣賜對宣醢題名記	1691	肅宗이 경희궁 興政堂에서 여러 종친들과 宣醢 의식을 거행한 궁중행사에 참석한 인원	“顯綠大夫 朗善君 侯”
2	溫泉幸行扈駕題名記	1665	현종이 피부병으로 인해 온양온천으로 行幸할 때 왕의 가마를 호종한 종친들의 명단	“崇憲大夫 朗善君 侯”
3	寧陵綏陵員役題名記	1674	효종 비 仁宣王后의 寧陵 조성을 마친 후 守陵을 담당한 관원들의 명단	“守陵官昭德大夫 朗善君 侯”
4	癸卯燕行一行題名記	1663	명나라 顯宗의 황태후가 흥서한 것을 계기로 북경을 방문할 때 수행한 관원들의 명단	“正使崇憲大夫 朗善君 侯”
5	辛亥燕行一行題名記	1671	명나라 康熙帝가 瀋陽으로 사냥을 나가기 전 문안인사를 드리러 북경을 방문할 때 수행한 관원들의 명단	“正使嘉德大夫 朗善君 侯”
6	丙寅燕行一行題名記	1686	謝恩使 겸 冬至正使로 신년 진하를 올리러 북경을 방문할 때 수행했던 관원들의 명단	“正使顯綠大夫 朗善君 侯”
7	睿源錄釐正廳題名記	1679	기 간행된 睿源錄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는 작업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	“提調興綠大夫 朗善君 侯”
8	睿源錄校正廳題名記	1680	선원록 5권을 등사하여 종부시와 각 史庫에 分藏하고 牒目을 수정하는 일을 맡은 관원들의 명단	“提調顯綠大夫 朗善君 侯”
9	睿源錄兩處奉安題名記	1689	수정된 御牒과 선원록을 강릉 오대산사고와 봉화 태백산사고에 각 1건씩 奉安한 업무를 맡은 관원들의 명단	“奉安使宗簿寺提調 朗善君 侯”
10	睿源錄赤裳奉安題名記	1683	선원록을 전라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봉안한 업무를 맡은 관원들의 명단	“奉安使宗簿寺提調 朗善君 侯”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제명기」는 시기순으로 수록되지 않았으나, 궁중행사라든지 燕行, 선원록의 봉안 등 대부분 낭선군이 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공적인 왕실 업무였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제명기에는 참여자의 관직과 이름, 출신지역

이 작은 글씨로 기재되었고 경우에 따라 字號와 生年[干支]이 기입된 인물도 있다. 『제명기』에 기록된 종친들은 물론이고 관원이나 寫字官, 畫員, 工匠들 중에는 李壽長(1661-1733)이나 金義信(1618-1663 이후)처럼 낭선군과 사적인 교류를 한 서예가[사자관]도 포함 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교유를 하게 된 계기를 파악하는데 단서가 된다.

『제명기』의 배경이 된 각각의 왕실업무에 대해서는 『백년록』의 일기 부분에도 간략히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과 관련 儀軌 등을 통해 행사 목적과 진행상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낭선군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예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가 1663년에 지은 『朗善君癸卯燕京錄』은 『제명기』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활동상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많은 참고가 된다.

이 책은 『제명기』 중 “癸卯燕行一行題名記”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燕行錄으로서, 낭선군이 처음 연행을 떠난 1663년(현종 4) 중국을 往復한 모든 과정과 일정,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들, 자신이 보았거나 구입한 서책과 서화에 대해 品評을 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특히 함께 동행한 역관 朴有炰, 朴而巖, 사자관 李彭年이 낭선군의 부탁으로 골동품 상점에 들러 명대 화가 仇英이 그린 <清明上河圖>와 중국 서첩인 <歷代名人書法>을 구입한 사실, 王怡라는 중국인 상인을 만나 회포를 풀 일화 등 흥미로운 경험담이 수록되어 있어 낭선군의 대외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5. 결 론

지금까지 낭선군 이우의 자서전인 『백년록』을 통해 종친이자 서예가, 편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일생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종친은 자신들의 출신배경으로 인해 士林과 달리 특정한 학맥이나 당파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學統과 정치 무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못했으나, 일부는 燕行을 통한 외교 활동,

御筆 및 왕실자료 간행에 있어 주목할 만한 행적을 남겼으며, 그 중 낭선군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자서전인 『백년록』에 수록된 일기를 토대로 낭선군의 일생에 있어 주요한 활동과 교유관계를 재구성하였고, “금석록”, “서법류”, “편찬류”, “제명기”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서예가로서의 활동, 편찬과 저술서, 종친으로서 왕실 업무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년록』의 기록에 의하면 낭선군은 총 164점의 각종 신도비, 묘갈명, 현판 등을 남겼을 정도로 당대 명성 높은 서예가였으며, 列聖御筆, 列聖御製, 璿源錄의 간행, 이와 관련된 奉安 업무 등을 주도하였다. 또한 宣祖의 필적을 가장 많이 모아 간행함으로써 종합적인 《宣廟御筆》을 세상에 알리는 데 공헌하는 등 조선 후기 왕실출판에 일익을 담당한 종친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낭선군은 공적으로 역대 국왕의 글과 필적을 모아 열성어제와 열성어필을 편찬했다면 사적으로는 선조들의 행장과 遺文을 모아 문집으로 간행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저술을 남기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그의 『잡저록』과 『와유록』, 『계묘연경록』 등은 조선사회에서 서서히 대두되고 있었던 폐관소설의 독서경험과 臥遊錄의 저술, 記遊文學에 대한 관심, 연행록의 출간 등 17세기 문화사의 흐름이 반영된 저서들이다. 그가 『백년록』의 自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모든 작업들이 國恩에 힘입어 이루어졌음을 자신의 회고록 속에 증명하고 영원히 후대에 남기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간행되지 못하였고 산재된 채 일부만 필사본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백년록』은 한 시대를 풍미한 개인의 비망록이기도 하지만 낭선군이 이 책을 통해 보여준 화려한 행적은 1680년 庚申換局과 1694년 甲戌換局으로 인해 宣祖系 종친이 몰락하기 직전 왕실 내에서 입지가 높았던 17세기 종친 집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시대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낭선군의 미확인 저서와 편찬서가 추가로 발굴되어 구체적인 저술 내용과 편찬자로서 활동이 좀 더 풍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璿源系譜紀略開刊儀軌」(167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李書九. 「楊齋屏居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李 俔. 「靖孝公家乘」(168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李 俔. 「先君遺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 俔. 「安平事迹」. 日本: 天理大 圖書館 영인본, 1977.

李 俔. 「大東金石書」. 日本 天理大 今西龍 文庫 소장.

李 俔. 「百年錄」(1692). 부산대 제1도서관 소장.

李 俔. 「雜著錄」. 日本 天理大 今西龍 文庫 소장.

2. 논저

金成俊. “宗親府考.” 「史學研究」 18(1964).

김수경. “17세기 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大史苑」 30(1997).

金芝娟. “朝鮮初期 宗親 仕宦의 推移.”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4.

김홍남. “安平大君 소장 中國 書藝: 宋 徽宗, 蘇軾, 趙孟頫, 鮮于樞.” 「미술史論壇」 8호(1999).

南智大. “조선시대 禮遇衙門의 성립과 정비.” 「東洋學」 24(1994).

朴湧植. “雜著錄 해제.” 「韓國學報」 第51輯(1988).

안휘준. “安堅과 그의 畫風 - <夢遊桃源圖>를 中心으로.” 「한국회화사연구」. 서울: 시공사, 2000.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27(2004).

이완우. “安平大君 李瑬의 文藝活動과 書藝.” 「美術史學研究」 246 · 247(2005).

이완우. “朝鮮王朝의 列聖御筆 刊行.” 「文化財」 243호(1996).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 (1999).

- 仁興君派丁卯譜修補委員會 編. 『全州李氏仁興君派譜』. 서울: 千字文藝社, 1988.
- 정규홍. 『우리문화재 수난사』. 서울: 학연문화사, 2005.
- 韓忠熙. “朝鮮 世祖代(1445-1468) 宗親 研究.” 『韓國學論集』 22(1995).
- 홍순민. “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 璿源錄 - 1681년 《璿源系譜紀略》의 편찬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1(1990).
- 황정연. “朗善君 李俔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 9집(2003. 9).
- 황정연.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 『藏書閣』 제12집(2004. 12).

